

광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제주보다 적다

과거정권 소외정책... 대규모 공업지대 없어 산업 취약

전남은 화학단지·발전소 늘어 전국 중상위 수준

광주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인 광주시가 전남도나 제주시 등 국내 대표적인 환경 친화적 지자체들 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것은 그만큼 대규모 공업지대 등이 적다는 말이 된다. 과거 정권에서 계속됐던 '호남 소외'가 만들어준 '깨끗한 환경 조건'이라는 역설적인 수치가 나온 셈이다. 반면, 화학단지와 발전소가 늘고 있는 전남의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은 전국 중상위 수준이었다.

28일 광주시가 국립환경과학원의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토대로 발표한 '시·도별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일산화탄소와 초미세먼지

등 대부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로 꼽히는 일산화탄소의 경우 지난 2014년 기준, 한 해 배출량은 광주가 9145t으로 세종을 제외한 전국 17개 특별시와 광역시·도 중 가장 적었다. 경기도가 9만7589t으로 가장 많았고 공기가 맑은 곳으로 알려진 전남은 3만4003t, 제주도 9560t으로 광주를 앞질렀다.

최근 국민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인 총먼지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의 광주시 배출량도 각각 349t, 362t, 354t으로 전국 최하위였다. 전남은 총먼지 3만9170t, 미세먼지 2만3844t, 초미세먼지 1만3833t이었다. 제주도는 각각 466t, 449t,

■ 광주·전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14년)

시도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화합물	총먼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유기화합물	암모니아
광주	9,145	11,594	349	362	354	318	15,594	1,098
전남	34,003	101,453	62,921	39,170	23,844	13,833	73,803	37,947

<출처: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국립환경과학원)>

395t으로 광주보다 많았다.

이 밖에 광주시는 질소산화물, 황화합물, 유기화합물, 암모니아의 배출량도 전국 최하위였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광주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 적다는 의미로, 산업 기반이 취약한 때문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전남지역은 여수화학단지 등 대규모 국가산업단지와 발전소가 많이 들어서 있어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이 많았다. 전남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제주도는 관광산업의 발달로 늘어난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바다를 접한 전남도와 부산, 울산, 인천시 등지의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이 높고 있어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광주시는 28일 "미세먼지 등 대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2018년부터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사업비를 대폭 증액한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윤장현 시장 "도시철도 2호선 임기내 착공"

의회·시민 의견수렴 정상 추진

윤장현 광주시장이 28일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도시철도 2호선 건립을 다시 공론화 하자"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임기 내 착공"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윤 시장은 이날 광주시청에서 진행된 간부회의를 통해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한 저의 원칙은 첫 번째가 안전성 그 다음이 효율성, 그다음은 임기 내 착공이다"고 밝혔다.

또 "안전이 모든 것에 우선하기에 임기 내 못할 특별한 사유가 생기면 그때는 재고할 수 있지만, 지금은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상황이다"면서 "일부에

서 도시철도와 관련해 말들이 있는데 이제까지 의회나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시장은 또 2호선 건설에 대한 장점과 역할 등도 강조했다. 그는 "2030년에는 이산화탄소를 30% 감축해야 하는 등 그런 대중교통 시대로 진입한다"며 "2호선 건설은 구도심과 외곽도시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역세권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내버스 노선은 순환철도의 보조수단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변경되어야 하며, 2호선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책 마련

자치구 청소과장 회의

위생매립장 탄력 운영

광주시는 28일 "최근 남구 환경미화원이 근무 도중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미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 21일 자치구 청소과장 회의에 이어 24일 업체대표, 노동조합, 시·구 관계자들이 참여한 합동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미화원들은 ▲작업시간 후 편하게 쉬고 식사할 수 있는 휴식공간 확보 ▲체육행사 지원 등 복지 향상 방안 마련 ▲위생매립장·음식물처리와

시설 탄력적 운영 ▲대용량 종량제봉투(100ℓ), 음식물 수거통(20ℓ) 사용 자체 ▲안전발판 설치 등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 등은 위생매립장·음식물처리시설 반입 제한시간 도입은 즉시 시행하고, 일부 건의사항은 해당 구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하는 등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 청소차량 후방 카메라, 경고음 등 안전장치 설치와 안전교육은 이미 실시되고 있는 만큼 추가로 추진하지는 않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와 상호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밝고 깨끗한 광주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THE맛있는 사랑의 김장김치

28일 광주시 서구 농성동주민센터에서 열린 'THE맛있는 사랑의 손길' 김장김치 나눔행사에 참여한 '농성2동 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사회복지시설과 돌봄이웃 130세대에게 전달할 김치를 버무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시교육청, 올해 쓰지 않고 내년으로 넘긴 예산 1000억 육박

3년전보다 9배 증가... 대부분 시설공사 예산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쓰지 않고 내년으로 넘긴 예산이 1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년 전보다 9배 증가한 것으로, 대부분 시설공사 관련 예산이었다.

28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광주시교육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명시이월한 사업은 120여건에 920억3900만원에 이른다.

명시이월은 예산집행 시 해당 연도 안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견되는 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시교육청의 올해 이월예산은 지난 2014년(100억9200만원, 결산액 기준)에 비해 9배, 지난해(580억원)보다도 58% 증가한 것이다.

명시이월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0.5%, 2015년 1.0%,

2016년 3.0%, 올해 4.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추경안 명시이월액 중 86.3%는 시설사업이고, 그 중에서도 각급 학교의 명시이월이 81.7%에 이른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은 "학교 시설공사는 일반 시설사업과 달리 방학 중에 진행할 수밖에 없고, 특히 고교 시설공사는 입시 일정상 연말 연시를 긴 겨울방학에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이월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광주시의회는 "명시이월도 집행 잔액인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설공사 기간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며 "여름방학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유치원 및 초·중학교 시설사업과 대입수능 대비 등으로 여름방학 공사가 어려운 고교 시설사업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본예산에는 유치원과 초·중학교 시설사업을 집중 편성해 여름방학에 공사를 진행토록 하고, 본예산에 편성하더라도 수능 전까지는 공사진행이 힘든 고교 시설공사는 하반기 추경에 집중 편성하는 두 트랙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발효율금 특허기술' 이전 산업화 추진

시제품 소비자 선호도 90% 만족

전남 특산자인 울금의 쓴맛을 줄여 식품화하는 기술이 지역 가공업체에 이전된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울금 소비 촉진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발효율금 제조방법 기술'을 전남지역 가공업체 2곳에 기술이전한다고 28일 밝혔다.

전남은 우리나라 울금 재배면적의 94% 이상을 차지하는 울금 주산지다. 울금은 간기능 개선과 항균활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울금의 쓴맛 때문에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생울금의 쓴맛을 22% 줄이는 '울금발효 특허기술'을 개발했다. 또 항산화 효과와 식품 부패 미생물에 대한 항균활성을 향상시켰으며, 유산균 발효를 통해 체내 흡수율도



높였다. 특히 지난달 열린 국제농업박람회에서 발효율금 시제품의 선호도를 평가한 결과, 90%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울금 쓴맛이 줄어 먹기 편하다는 반응이 나온 것이다.

강정화 친환경농업연구소 가공유통팀은 "기술원이 개발한 특허기술을 가공현장에 적용해 다양한 제품 생산·판매 등 산업화할 계획"이라며 "전남 특산자인 울금 소비 촉진은 물론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울로(YOLO)이오~쇼~

경품평평!! 사은행사

1등

300만원 디지털 상품권 (1명)

2등

LG 전기 건조기 (1명)

3등

갤럭시북 태블릿PC (1명)

4등

샤오미 미밴드2 (100명)

※ 상품이미지 사진은 실제 상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당첨자 부담입니다.

기쁜 기쁨!!

보조배터리

손톱 깎이 세트

모바일 쿠폰

보온보냉병

■ 자격조건 (아래 항목중 한가지 이상 충족시 개수별 지급)

상품구분	자격기준	기쁨품 및 경품권 지급대상
체크카드	최초 신규발급 이용자	당월 5만원 이상 이용시
대출	신규실행 고객 (공제미리 및 예적금발급내 제외)	실행시
정기예금 및 적금	신규가입 고객	당월 1건에 한함
출자 적립	10만원 이상 입금시	최초 1회
생명공제	신규가입 고객	중복 지급 가능 가입시
손해공제	신규가입 고객	
급여/가맹점	신규연결 고객	
스마트뱅킹	신규가입 고객	
스마트알림	신규가입 고객	
상상뱅크	신규가입 고객	

18년 1월말 상품별 유지자 '경품행사' 추천대상

행사기간 | 2017년 10월 16일(월) ~ 12월 29일(금)

경품추첨 | 2018년 2월 예정(18년도 정기총회)

MG 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 223-8007, 232-7251
충장지점 ☎ 223-7217, 223-7218